티베트 고위승려 부끄러운 성추문

닥리 린뽀체 향한 피해자들 폭로 잇달아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한차례 홍역을 앓은 티베트 불교계가 다시 시끄럽다. 지난 5월 16일 '트리 사이클' '라이온즈 로어' '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등 주요 불교전문 외신들은 티베트 불교의 고위승려 닥리 린뽀체(Dagr rinpoche)가 3명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닥리 린뽀체는 티베트 불교 최대 종파인 겔룩파의 고위승려로, 영미권과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티베트 불교단체 'FPMT(대승불교유지재단)' 의 지도법사중 한 사람이다.

논란의 발단은 5월 3일 닥리 린뽀체가 인도 뉴델리서 히마찰프라데시주(州)의 캉그라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 기내에서 30대 인도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뉴스였다. 당시 공항경찰은 캉그라 공항에 내린 닥리 린뽀체를 체포, 조사 후 보석금을 받고 석방했다. 이 사건은 인도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후 5월 13일 '라이온즈 로어' 는 전 티베트 불교 비구니였던 자카이라 페레즈 발디비아(Jakaira Perez Valdivia)가 동일인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유튜브에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자카이라는 2008년 다람살라에서 비구니로 있을 당시 닥리 린뽀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카이라는 유튜브에서 "당시 나는 신체적 ·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닥리 린뽀체는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 며 자신을 찾아온 나의 가슴과 골반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티베트 최대종파 겔룩파 소속
대승불교유지재단 지도법사로
한국 · 서양인 피해자 알려지며
티베트 비구니 '진상조사 촉구'

자카이라는 고민 끝에 2010년 피해사실을 4장의 진술서에 담아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과 FPMT 사무국, 캉그라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은 달라이라마 사무국 측에서 3자 대면을 마련하고 닥리 린뽀체가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건이 확대되자 13일 저녁, 닥리 린뽀체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명했다. 먼저 기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에 대해 "지병인 관절염 때문에 바로 앉지 못하고 잠시 좌석에 기대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옆 좌석 여성이 내가 자신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잇단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티베트 겔룩파 고위승려 닥리 린뽀체. 사진출처=트리사이클

자카이라의 폭로에 대해서는 "그녀의 요청에 응해 그 자리에서 장애를 소멸하는 기도를 행했다"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카이라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SNS를 통해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한 세 번째 여성이 등장했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다람살라 티베트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린뽀체를 만난 자리에서 닥리 린뽀체가 자신의 가슴을 잡았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댓글과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여성은 닥리 린뽀체를 친견했던 사진과 당시 경찰에 제출한 조서의 사진을 공개했다.

닥리 린뽀체의 이러한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린뽀체가 활동하는 FPMT의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13인이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현재 이들은 "우리들 중 몇몇은 닥리 린뽀체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서양인 여성 출가자들을 알고 있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달라이라마 개인접견 금지

최근 건강이상설 종식 위해 요양에 집중키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최근 반복되는 건강이상설의 종식을 위해 요양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7일 '티베트 썬' '티베탄 저널'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의 성명과 공식 사무국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먼저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5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달라이라마 존자를 개인적으로 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달라이라마 존자의 건강과 연세를 생각해 볼 때, 지금과 같은 개인접견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올해 초부터 건강이상설이 불거졌으며 실제 4월에는 흉부감염으로 긴급입원치료를 받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퇴원 인터뷰에서 "1월 보드가야에서 걸린 감염이 완치 되지 않아 재발한 것, 이제는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을 위해선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달라이라마를 접견하는 이들은 반드시 단체로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이 개인적으로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자께서 특별히 바라시는 경우에만 개인 접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외사항을 전했다.

사무국 발표 후 티베트인들은 "발표 전부터 SNS에 달라이라마의 건강을 위해 일정을 줄여야 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이 유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어 17일 다람살라에서 봉행된 장수기원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는 "신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에 매우 건강하다"고 전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역법과 여러 예언에는 내가 113세까지 산다고 한다. 난 지금 매우 건강하며 스스로 110세 이상 살 수 있음을 장담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최근 피로를 자주 느낀다. 여러분이 나의 장수를 원한다면 내가 더 쉬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잇단 종교 테러로 '베삭데이'도 침울

스리랑카 종교내전 한 달째
AFP "가짜뉴스 혐오감 조장"

불교국가 스리랑카가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다. '종교 내전' 때문이다. 지난 4월 21일 이슬람 단체에 의한 '부활절 테러' 가 발발, 극우불교단체 등 반(反) 이슬람 단체들의 '맞불'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 AFP 등 외신은 5월 22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종교 내전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부활절 테러가 단초가 됐다. 콜롬보 시내 호텔 및 주요 교회 등 8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257명이 사망했다. 배후로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가 지목됐다.

이후 반이슬람교도의 보복 테러가 시작됐다. 기독교 · 불교도 등은 이슬람사원(모스크)으로 몰려가 돌을 던지고 창문을 깨는 등 건물을 훼손했고, 이슬람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호텔도 테러 대상이 됐다. 일부 극단주의 기독교 · 불교 단체 회원들은 무고한 이슬람교도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특히 지난 5일 콜롬보 북쪽 네곰보 지역에서는 스리랑카인의 주를 이루는 불교도 싱할라족과 무슬림 주민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스리랑카는 현재 곳곳에서 종교 내전이 발생, 당국이 전방위적 통제에 나선 상황이다. 사진출처=AFP

이번 사태는 스리랑카 전역으로 확대, 종교 전쟁이 격화되는 조짐이다. 이 여파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축제인 베삭(Vesak)마저 지난 18일(현지시간) 테러 위협 속 암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스리랑카 불교는 암울하다. 극단주의 종교인들의 테러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베삭 데이가 진행됐다. 일부 불교도들은 평화 ·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AFP는 이 같은 종교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으로 '가짜 뉴스' 를 지목했다. 스리랑카 당국이 SNS를 차단했음에도 불구, 폭탄 테러 관련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며 이슬람-반이슬람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스리랑카 정부는 부활절 테러 직후 9일 간 각종 SNS 접속을 막았으나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13일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AFP는 "가짜뉴스는 대부분 특정 종교에 대한 분노 및 혐오감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라며 "부활절 테러 후 게재된 6개 뉴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날조된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FP는 SNS 상에 'ISIS' 가 적힌 티를 입은 사진을 게재하며 자신을 ISIS라고 소개한 한 트위터리안을 '가짜뉴스' 예로 들었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자신을 "스리랑카군 준장"이라고 밝히며 반복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아래에는 이슬람교도와 반이슬람교도 간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사진은 스리랑카인과는 관련 없는, 5년 전 인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정관 스님은 토리노 시내 동양미술박물관에서 발우공양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출처=AGRODOLCE

伊 4대 도시 토리노, K문화에 빠지다

'한국문화주간' 정관 스님 발우공양 워크숍 '성황'

이탈리아의 문화중심도시 토리노(Torino)가 한국문화, K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토리노시 당국은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 한국문화원 및 주밀라노 총영사관과 함께 '한국 문화 주간' 을 5월 19~24일 진행했다. 이탈리아 통일 후 첫 수도였던 토리노는 로마 · 밀라노 · 나폴리와 함께 이탈리아 4대 도시로 꼽힌다. 이곳에서 대규모 한국문화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리노에 한국 바람이 분다(Vento di Corea a Torino)' 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한국의 대표 문화인 사찰음식뿐만 아니라 K팝, 한국영화, 태권도, 한복, 서예 등이 소개됐다.

특히 한국 사찰음식의 선구자 정관스님이 출연, 시내 동양미술박물관에서 발우공양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관 스님은 몰려든 관광객들에게 발우공양 문화를 선보여 큰 찬사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앞서 현지 언론들은 정관 스님의 발우공양 워크숍을 '가장 기대되는 행사' 로 꼽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K팝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광적 인기도 입증됐다. 19일 오후 시내 발도코극장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는 K팝 커버댄스 그룹 11팀과 커버싱어 2팀이 무대를 꾸몄다. 340석 규모의 객석이 꽉 들어찼고, 표를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공연장 바깥에 운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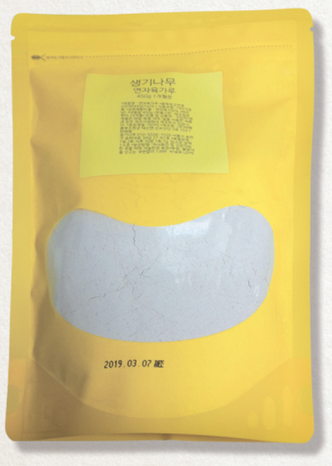
오충석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은 "이탈리아 내 한류 팬이 서로 소통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 영 제
부설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www.daesungsa.or.kr

신인류선경문화창달진인출세
天地大學經
천 지 대 학 경
눈 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들을 지어다!
천지인륜의 도리가 뿌리채 흔들리는 무도한
혼란격동 시대에 천심으로 원시반본하여
천부경 불경 사서삼경 성경으로부터 신선
보살 군자 천사로 거듭나서 출세하는 21세기
『신인류재 창조문화』로 창달하는 "신시대구원
경전" 의 급박한 정보소식을 배달 합니다.
金山 드림
금영출판 671쪽 성의금49,000원
농협: 209-02-679386 김남식
문의: 010-2762-8235
道 政 院

여러 질병을 없애고 예방을 하는
연꽃씨앗 차와
생기호흡 염불
연자효능 비 만 소화불량 당 뇨 고혈압

내장지방이 많으면 만병에 원인이 됩니다.
배가 불룩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내장지방이 과다합니다.
연자육 차와 생기호흡 염불은 내장 지방
감소에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생기는 올바른
호흡법에서 발생됩니다. (생기호흡법
제품설명서 참고)
연자육 차 정량 마시고 생기염불하면 기도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이것은 과학이며
의학입니다. (연자육가루 450g 1개월분)
가격 15,000원 (무료배송)
간화선 염불선 명상 모두 핵심 생기가 없다. 종교의 핵심 알맹이를
모르면 기도에 효과가 없다. 종교와 생기 책은 종교의 알맹이는 1%
미만으로 요약하였고 생기호흡은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과학과
의학적 설명을 하였다. 260쪽 | 가격 15,000원 (무료배송)

계좌안내 : 국민은행 810101-04-301653 예금주 황보병호
HP 010-5556-1526 | 이메일 a66889@naver.com | www.saenggi.net